



서울의 한 마트에 진열된 김치들.

/뉴스스

절임염수 재활용으로 김치제조 年 1억 절감

농식품부, 13개 김치제조사 선정
여과장치 등 설비 구축 비용 지원

정부가 2024년도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사업' 수행 대상자로 김치제조업체 13개소를 선정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김치제조 시 필수 재료인 소금류의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김치제조업체의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절임염수 재활용에 필요한 여과장치를 비롯해 오존처리장치 등 시설 구축 비용(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등을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가격정보에 따르면 굵은소금 가격(상품/5kg)은 지난 2021년 8038원에서 2022년 1만535원, 2023년 1만1993원으로 뛰었다.

국내 상품김치 시장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편의를 추구하는 소비패턴 변화와 해외에서의 발효·비건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수요 증가로 내수·수출 모두 성장 추세다. 그러나 소금류를 포함한 원재료 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김치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재활용 설비 구축을 통해 절임염수를 최대 20회까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용수 및 소금류 투입비용은 44%, 폐수 처리비용은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절임염수 20톤/일 재활용 시설 기준, 약 1억 원 절감)의 염수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절임염수 재활용 시설 구축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치제조업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김치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 촉진 및 원료수급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배달종사자, 무더운 날에도 안전모 써야

고용부 여름철 안전위한 수칙 마련
배민·쿠팡이츠 등 가이드 확산 협조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배달종사자의 여름철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수칙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배달종사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배달종사자를 위한 호우·태풍 안전수칙 가이드'를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배달종사자들은 무더운 날에도 야외에서 안전모를 쓰고 있어야 하고 비가 오면 미끄러운 도로 위를 운행해야 해서 여름철 건강과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가이드를 통해 폭염, 호우·태풍 시 배달종사자와 플랫폼 운영사가 지켜야 할 조치를 그림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QR코드를 찍으면 쉼터 위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는 주요 플랫폼 운영사에 배포해 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유아한정년(배달의민족), 쿠팡이츠서비스, 플라이앤컴퍼니(요기요) 등이 가이드 내

용의 이행·확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플랫폼 운영사는 가이드 내용을 업무용 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종사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자가 점검하고, 적절한 휴식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와 운행시간 정보 등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은 7월 말부터 배달종사자에게 커피 트럭을 지원하고, 쿠팡이츠는 호우·태풍에 대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기요는 배달종사자에게 편의점에서 생수를 교환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제공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올여름은 많이 덥고, 비도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가 배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운행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캠코, 1488억 규모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지원
SPC 유동화 사채 786억 인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1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부실 브릿지론 및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 발행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 등에 따라 여신 건전성 제고 및 부

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및 유동화 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24일에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총 1048억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캠코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한 유동화 사채 가운데 약 786억 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하

고,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부실채권(NPL)펀드가 인수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중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새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54),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57)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특히 공정위의 주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으며 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 생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 처장은 대변인과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



남동일

육성권

신임 공정위 사무처장 신임 공정위 조사관리관

을 역임하며 사무처장으로서 필요한 대내외적인 소통 역량을 길러왔다"며 "앞으로 정책 분야에서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100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변인과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 시장감시국장 재직 시 이동통신 3사

의 5G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과잉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했다. 기업집단국장 때에는 삼성 사내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하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처리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학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임기 3년의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오규성 변호사(46)를 위촉했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7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AI 등 최첨단 기술 활용 디지털 경제교육

기재부, '경제배움e+' 운영 시작
맞춤형 콘텐츠 제공 플랫폼 개편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경제교육 플랫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AI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정보 및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 경제교육 웹사이트 '경제배움e'를 운영해 왔다. 최근 들어 경제교육 필요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 최신 정보기술 적용 및 보다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이

용자 요구가 많았으며, 이에 경제교육 주체들의 콘텐츠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신규 플랫폼으로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회원가입 시 관심 분야를 선택하면 AI 기술이 그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AI가 최근 학습 콘텐츠와 유사 콘텐츠를 추천해 주고, 매월 해당 분야의 콘텐츠를 '뉴스레터'로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이용자가 필요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간결한 초기화면과 주요 메뉴로 구성했다. ▲초기화면은 이용자의 관심 분야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는 '최신

맞춤형 콘텐츠' ▲주간·월간 조회수가 많은 '인기 콘텐츠' ▲주제별(14개)·교육 대상별(학생·사회초년생·군인 등)로 '추천 콘텐츠' 등으로 구성했다. 또 맞춤형 알고리즘의 연관 콘텐츠도 제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아울러, 14개의 대분류와 80여 개의 소분류 등 콘텐츠 분류체계를 새로 정비했다. 최신 검색엔진을 통한 연관어 검색 기능도 제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개통과 함께 경제교육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러닝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 콘텐츠, 예능형 시리즈, 레트로 경제이야기 등 약 30여 편의 영상물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2024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

고용부-산업인력공, 내달 4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4일까지 '2024년도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3년에 이어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접수된 사례는 내·외부 전문가 심

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8월 내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 고용허가제의 방향성과 우수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의 최우수상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장려상은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이 각 수여된다. '우수사업장 분야'의 출품 대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경

험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사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업장 사례, 외국인 근로자 복지 및 정착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업장 사례 등의 주제로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분야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직장 생활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중요 업무를 맡은 사례,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감동적 스토리가 있는 사례 등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제출하면 된다.

/신하은 기자 godhe@